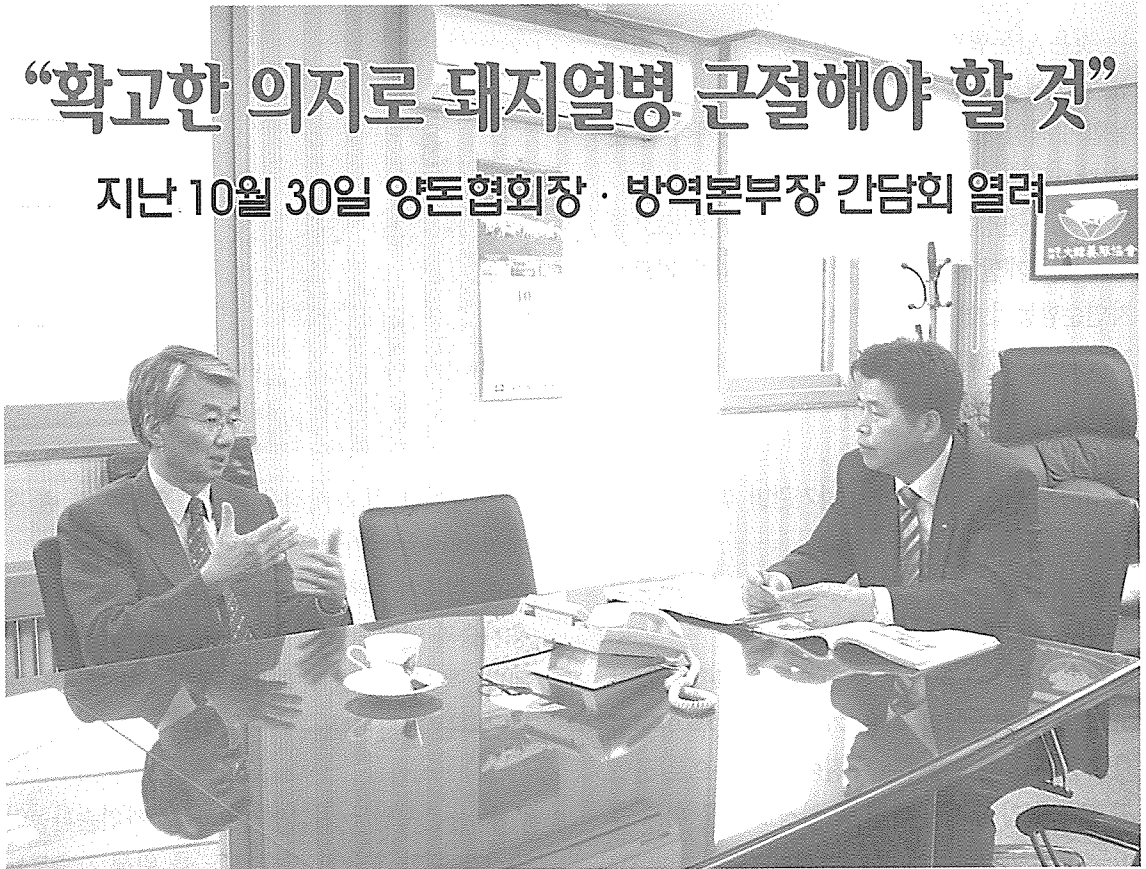


# “확고한 의지로 돼지열병 근절해야 할 것”

지난 10월 30일 양돈협회장 · 방역본부장 간담회 열려



▲ 최영열 양돈협회장과 최상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이 지난 10월 30일 양돈협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축산관련 당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최영열 회장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최상호 본부장은 지난 10월 30일 양돈협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축산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영열 회장은 최근 축산현안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질병방역을 위해 가축위생방역본부와 축산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하는 한편, 향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돼지열병을 근절해야 한다고 언급해 주목받았다.

특히 최영열 양돈협회장은 최상호 본부장과 의 간담회를 통해 OECD 국가 중 돼지열병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우리가 스스로 위생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돼지열병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야 향후 위생무역장벽도 뚫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상호 본부장 또한 돼지열병 근절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그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돼지열병 근절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금부터 돼지열병 근절사업 계획을 갖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향후 방역본부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돈**



## 자조금 납입률 향상 위해 도별 납부관리 강화

교육·연구사업 강화, 소비홍보 더 축소  
자조금 관리위, 내년도 예산 수정안 통과

2007년 양돈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과 조사연구사업 비중은 늘고 소비홍보사업은 더욱 축소되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한편, 자조금 납입률 향상을 위해 도별로 납부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지난 11월 8일 양돈자조금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에서 관리위원들은 2007년도 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관련,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115억원의 자조금 예산안을 마련했다.

### ◆ 총 115억원의 자조금 예산안 마련, 교육·연구사업 강화 특징

예산안에는 양돈농가에게 양돈자조금을 정확히 홍보하고 도별 자조금 납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별로 자조금을 홍보·관리하기 위한 '도별 농가 납부 관리처' 항목을 신설, 1억원의 예산을 투입

키로 했다. 또한 수입산 돼지고기의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 연구사업에 5천만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소모성질환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돼지 소모성질환 실태조사에 2억원을 신설키로 했다.

반면 소비홍보사업 가운데 전광판 광고는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하고, 온라인 홍보사업도 홍보효과가 약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해 예산을 절반 감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비홍보사업은 68억원(59.4%)으로 줄고,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은 16억원(14.1%), 조사연구사업은 9천만원(7.9%), 예비비 13억8천만원(12.0%) 등으로 각각 증가했다.

한편 양돈협회 각 지부별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사업을 강화하는 2005년 자조금사업 예산변경안과 운영관리비 예산 변경안, 양돈자조활동자금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양돈**